

'공교육 멈춤 행동' 정당하다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집단행동을 돕는 교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사들이 사용한 연가·병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9월 4일 행동에 동참한 교사들을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8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때문에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부가 전반적인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유·초·중·고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이나 줄었고,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이 9.1퍼센트(6조 9000억 원)나 감액된 68조 8859억 원에 그쳤다. 8월 9일에는 내년 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약 1500명이나 줄인다고 발표하더니, 교육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버린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민원대응팀 구성, 일시 분리 학생을 보호할 공간 마련과 지원 인력 배치 등만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 해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말이다.

이처럼 정부가 예산·인력 지원도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내놓으며 교사들을 중징계로 위협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고진 세종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 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육청들도 징계를 위협하는 교육부의 협박성 공문을 각 학교로 내려보냈다. "교육부 공문을 안 보내면



이후 고발당할 수도 있다"며 말이다. 페이스북 등에 듣기 좋은 말만 올릴 뿐이지, 정식 공문으로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9월 4일 행동을 방어하는 일에 나서지는 않고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은 공교육 멈춤 행동 대신 지역별로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하며 정부 편을 들어 교사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일부 교사노조도 9월 4일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운영팀이 해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곧장 새로운 운영팀이 구성돼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미 10만 명 가까운 교사가 9월 4일 행동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9월 2일에 '50만 교원 총결기'라는 기치로 열리는 제7차 교사 집회에는 지

방에서 최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30일까지 집회 운영팀이 집계한 전세버스 대여 상황을 보면, 버스 500대에 1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6차 집회 때 전세버스 92대에 참가 인원이 2800명이었던 것과 견주면 5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기세를 이어 나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이 최대 규모로 성사되어야 한다. 더 큰 행동이 벌어질수록 정부가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을 탄압하는 데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 점에서, 전교조 같은 좌파적 노동조합이 9월 4일 행동에 공식적·공개적 참가를 결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집회를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찌질한 일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사서 지지 여론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해 9월 4일 행동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러 학생·학부모 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보듯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진정한 여론이 만만찮다. 9월 4일 행동이 대규모로 벌어지면 교사들에 공감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초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공교육 멈춤' 행동 한 번으로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월 4일 행동으로 교사들의 자신감이 성장하면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 나갈 토대가 될 수 있다.

9월 4일 행동 이후에도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받아 낼 때까지 투쟁이 이어져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wspaper.org

내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가하는 이유

세종의 초등 교사

주말마다 교사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데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에 실질적 지원을 해 주진 않고 또다시 학교 내에서 민원 담당팀을 만들라는 돌려막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

'중대한',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학생을 분리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사안이 중대했는지, 긴급했는지를 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을 학폭처럼 생기부에 기재하란다. 학폭 담당만 맡아도 소송을 당하는 마당인데 말이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도 외면해 온 교육부는 우리가 공교

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자 파면과 해임을 운운하며 서슬 퍼런 징계를 들이댔다. 조용히, 묵묵히 다시 자리로 가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한두 명씩 나가 보결하고 끝난다면, 교육부는 결재 없이 나간 교사와 결재한 교장, 재량휴업을 한 교장을 손쉽게 징계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을 내놓고 지나가려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지킨 각 교실에 그대로 묻은 채.

이번에야말로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서울의 초등 특수교사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나는 '특수교사니까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참 열심히 했다.

교육 활동 중에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면 다시 새것을 준비했다. 어떤 제도적 지원도 없었고, 도움을 주는 관리자도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들의 삶도, 학교에서 외로운 섬으로 있는 나의 자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통합교육을 위해 이것저것 고민하고 지원해 보려 해도 특수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좌고우면, 표리부동 하는 답답한 태도를 보인다.

동료들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가해야 정부 탄압의 예봉을 무디게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포항의 초등 교사

4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선배 교사들에게 많이 들어 왔던 얘기 중 하나는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였다. 나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특히 생활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낀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다.

정말 수많은 민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민원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담임의 몫이다. 서이초 선생님이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 교직에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거다.

마지막으로 9·4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현 교육부의 행태다. 사실 방학 때까지만 해도 9·4 파업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우리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 고민할 것이 없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9·4 파업에 동참한다.

전라남도 무안의 중등 교사

인혜(가명)는 친구 관계가 파탄 나는 바람에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었다. 학교에 오더라도 4교시만 끝나면 집에 보내 달라고 떼를 쓴다. 인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다. 전학을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인혜는 학교에서 제안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거부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담임 교사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퇴를 시켜 달라는 인혜를 억지로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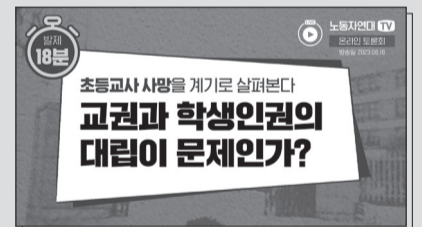
담임 교사도, 부모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 인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교육 당국의 지원이다. 학생들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

로만 남겨 뒤서는 안 된다. 상담 자원과 대안적 교육 자원을 동원해 교사를 지원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사를 선발해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렇기에 9월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은 내게 한 줄기 희망이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추천 동영상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랑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youtube.com/watch?v=TeAD45wT1iA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 구독
- ♡ 좋아요
-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옥스퍼드 대학교 존 패링턴 교수 초청 강연

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9월 4일(월) 오후 8시

발제 존 패링턴

옥스퍼드 대학교 세포/분자악리학 부교수
인간의 뇌와 의식 연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온라인 토론회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출간 기념
저자 초청 토론회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저자 장호중

신간

9월 13일(수) 오후 8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